

‘명부유출’ 이용섭 책임 벗어난 듯

문자 발송비용 비서 개인계좌서 지불...공금과 무관 판단

경찰, 민주광주시당 전임 당직자 줄소환...수사 속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외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임 당직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쓴 비용이 B씨 자신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측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 전임 조직국장 A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주당 광주시당 자체 조사 결과 당원명부 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광주시당에 있는 컴퓨터에서만 보관·관리되는 당원명부를 당사자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를 불러 유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명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한 뒤 A씨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와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자료를 복원, A씨 등이 유출한 자료와 문자발송 자료 등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A씨로부터 유출한 당원 명부를 받아 당원들에게 이 전 부위원장 명의로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비용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일자리 위원회의 공금이 문자 메시지 발송에 쓰이지 않았

던 이 전 부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문자 발송경위와 그 발송비용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B씨와 이 전 부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관계당국은 “당원명부 유출 관련 자료 확인은 마무리 단계로, 이제 관련자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라면서 “소환 시기나 방법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불러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강도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국회 찾은 금호타이어 노조

은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를 면담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민주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를 찾

멀어져가는 개헌안 동시투표

정의당 “한국당 개헌의지 확인되면 투표 연기 협력”

평화당도 대통령 발의 부정적...한국당 오늘 입장 발표

정의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우군이던 정의당과 평화당마저 돌아서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 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발의보다는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 대

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개헌안이 부결되고 나면 정국이 급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6일 자체 개헌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개헌 협상과 관련,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국회가 총리추천권을 갖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책임총리제를 매개로 개헌 협상을 풀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조찬 개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강기정 ‘500만 광주광역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주변에 국제 비즈니스 시티를 조성해 공항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500만 광주광역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군공항 이전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활용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광주공항 부지는 광주시가 직접개발 사업을 벌여 개발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한전공대·에너지 밸리 신속 추진”



신정훈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15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전남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전남은 더는 야당의 본고장이 아니라 촛불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당당한 집권세력이자 운명의 개척지”라며 “이제 본격 지방정부 시대를 맞아 정부의 가치, 철학,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정훈이 해야 할 일은 ‘문재인이 핫라인’이 돼 전남도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전 공대 설립과 에너지 밸리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민형배 “문화예술치유 특화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화예술정책을 내놨다.

민 후보는 15일 “광주의 의미 있고 재미 넘치며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여행자원을 켜어 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연계해 ‘문화예술치유지원센터’와 ‘문화예술 치유 스퀘어’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민 후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지역과 소외·취약지역,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 특화 사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5·18사적지 통합 장소브랜드 등을 통해 사적지 중 8개 공간을 광주정신을 습득하는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

정희곤 “광주교육 새 미래 열겠다” 출마선언



정희곤(56) 전 광주시의원이 15일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멈추지 않는 교육개혁과 끝없는 도전을 통해 광주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끼와 재주를 가진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북돋아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겠다. 앞서가는 아이도 뒤처진 아이도 모두 살뜰히 보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최영호 “임산부에 엄마수당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임신 7개월 이상의 모든 임산부들에게 엄마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광주시의 출생아 수가 2104년부터 계속 감소 중에 있고, 2016년에는 11,000여명을 기록했다”면서, “광주시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또 “엄마수당 공약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육아, 개인적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광주만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이정선 “광주 권역별 문화예술중점학교 확대”



이정선(59·전 광주교대총장)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광주 문화예술단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예술기관과 함께 권역별 문화예술 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찾아 문화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끼와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기 어려운 탓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는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 광주를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 뿐 아니라 타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광주로 유학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된 ‘예향광주 르네상스’를 이루겠다”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

장만재 “자연·레저 어우러진 관광 전남 조성”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이 15일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람과 자연, 미래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역동하는 전남을 가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다도해 바다와 섬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자연과 다이나믹 레저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을 만들어내겠다”며 “농·축·수산물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해 ‘숨 쉬는 땅,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농어촌’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16일 이후 민주당 중앙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석웅 “교육·학교자치 혁신 이룰 것”



장석웅(63·전 전교조 위원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8년 재임기간 동안 무지개학교 운영과 무상급식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등을 통해 전남 교육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장 교육감 퇴임식에 참석, “장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도민 직선 교육감 1, 2기의 성과를 토대로 학교를 빛나게 하는 교육행정, 지역민과 교육주체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방분권 시대의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민주노총 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진보성향 시민단체 370여곳이 추진한 민주교육감 경선을 통해 선출된 진보진영 단일후보다. /*김형호기자 khh@

구례,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연수원/요양(병)원 변경가능
- 대572평, 건683평, 객58, 4층건물
-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 전체리모델링(5억), 관광온천지구
- 매18억(대출8억포함,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광주에서 40분
- 대지106평, 건물42평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시세 - 1억 1000만원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매매 - 8200만원
- 문의. 010-3605-5000